



무주군, 드림스타트 부모 지원 '가족공예' 운영

무주군이 지역 내 드림스타트 부모를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손끝에서 피어나는 힐링, 가족공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9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모두 14명으로, 가족을 활용해 자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직접 만들어 성취감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가족 공예가 집중력을 요하다 보니 오토이 나 자신과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좋더라”며 “직접 만든 가방을 아이에게 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해줄 지도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강은희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부모님들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모님들이 이번 ‘힐링 가족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녀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드림스타트 가정의 행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아동들의 건강안 성장과 발달,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317기 신입경찰관 환영식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는 19일 제317기 신입 경찰관 6명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무주경찰서에 발령받은 신입경찰관은 19일부터 시작해 약 9주간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실습기간을 거친 뒤 치안 현장으로 나가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신입경찰관들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 봉사하는 경찰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업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기본업무에 열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박충근 무주경찰서장은 “무주경찰서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작될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항상 신뢰받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경찰서, 찾아가는 어르신 사고예방 홍보 실시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후)는 19일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창공원과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부안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부안서에서는 자체 홍보전단 제작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 다각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홍보 내용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서GO, 좌우를 살피GO,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에 건너GO 라는 구호를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안내하며,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광 지팡이나 밝은 옷을 입고 다니도록 계도와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꼭 횡단보도를 이용 건널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민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야누스 맥신 합성 · 응용기술 개발

전북대·성균관대, 니켈-맥신 양자점 적용 슈퍼커패시터 구현

전북대 · 성균관대 공동 연구진이 다재다능한 두 얼굴의 야누스 맥신 양자점을 합성하고 이를 이용한 슈퍼커패시터와 촉매를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전북대 유승화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 진경환 교수(물리학과), 성균관대 박성준 교수(화학공학부)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니켈(Ni)-맥신(MXene) 야누스(Janus) 양자점을 합성, 이를 적용한 차세대 슈퍼커패시터와 유기물 변환 촉매 기술을 개발한 것.

연구 성과는 공학 · 재료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IF 26.8, JCR 상위 2.1%)에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팀은 in-situ HF 방식으로 Ti3C2 맥신 시트를 제조한 후, 암모니아를 사용해 맥신의 입자 크기를 줄여 맥신 양자점(MQD)을 합성했다.

이와 동시에 니켈(Ni) 전구체와 환원제를 함께 투입, 수열합성을 통해 Ni-MXene Janus QD(Ni-MQD)를 형성했다.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HRTEM), 고각 환상 암시야 주사투과전자현미경(HAADF-STEM),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법(EELS) 원소 매핑, 각도 분해 X선 광전자 분광법 심도 프로파일링(AR-XPS depth profiling) 등 고도 분석을 통해 Ni-MQD가 한 면은 Ni 결정, 다른 면은

MXene 결정이 서로 결합된 비대칭적인 ‘야누스’ 구조임을 확인했다.

또한 유기물을 변환하는 촉매로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산화제인 과산화모노황산(PMS)을 활성화해 벤질알콜을 벤즈알데하이드로 변환하는 촉매로 Ni-MQD를 사용, 높은 수율 · 변환율 · 선택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일원리 기반 계산화학을 통해 이론적으로도 입증했다. 밀도 범함수(DFT) 계산을 이용해 Ni-MQD의 전자 구조를 규명했고, 맥신에 니켈을 도입함으로써 슈퍼커패시터 양극에서 수산화이온(OH-)의 확산 에너지 장벽이 낮아져 수도커패시터 거동이 향상됨을 밝혀냈다.

공동연구를 주도한 전북대 유승화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니켈-맥신 야누스 양자점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과 촉매 소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확보한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수전해 촉매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 적용하려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기초연구실지원사업, 학연협력플랫폼공작 사업사업 본사업, 기초연구소지원사업 (G-랩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4단계 BK21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서 6차례 암 극복한 ‘불사조 할아버지’ 영면

38년간 암 수술 6회 등 21개 진료과 치료… 의료진에 감사 인사 전하며 호스피스 병동서 별세

전북대학교병원원은 38년간 6번의 암을 극복하는 등 숱한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불사조 할아버지’로 불리던 강용희(83·완주군) 남이 영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988년부터 전북대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지난 38년간 암 수술 6차례 완치, 10여 차례 수술, 응급실 45회 진료, 21개 진료과 진료를 받아왔다.

‘불사조’는 젊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수술과 투병생활을 이어온 고인이 생과사의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 마다 가족과 지인들이 붙여준 별명.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방송과 신문 등에 6번의 암을 물리친 불사조 할아버지로 소개되며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6번째 암을 극복하고 7번째 암(다발성골수종) 치료 중 돌아가신 고인은 말기 치료 단계에서는 전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아왔다. 가족과 귀한 시간을 나누며 환자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웃는 영정사진을 고르는 등 긍정적인 태도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고인은 환자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전북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전했으며, “인생이 생각난 것 만큼 길지는 않더라, 하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는 유지를 남겼다.

불사조 할아버지 유족들은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마지막 돌봄 치료는 가족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전북대병원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고인께서는 38년 동안 우리 병원과 함께하며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셨고, 의료진을 끝까지 신뢰해 주셨다”며 “그 삶이 남긴 울림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간을 맞이했다.

고인은 환자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전북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전했으며, “인생이 생각난 것 만큼 길지는 않더라, 하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는 유지를 남겼다.

불사조 할아버지 유족들은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마지막 돌봄 치료는 가족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전북대병원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고인께서는 38년 동안 우리 병원과 함께하며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셨고, 의료진을 끝까지 신뢰해 주셨다”며 “그 삶이 남긴 울림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한의과대학 학부생, 학문적 역량 입증 I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들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이진솔 · 안선웅 · 김영우(이상 한의학과 1년) 학생은 김미혜(한의예과) 교수의 지도로 다량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천연물의 비교우위 및 효능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 학술지 ‘난소 연구 저널(Journal of Ovarian Research, Impact Factor 4.2)’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의학과 학부생이 주저자로 참여해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

특히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물들이 호르몬 조절과 난소 기능 회복, 대사 증상 개선, 생식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문헌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기존의 서양 의학

적 치료와 비교해 한의약 치료의 보완적 역할과 장점을 제시했다.

제1 저자인 이진솔 학생은 “문헌 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동 저자인 안선웅 학생은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우 학생은 “국제 논문 게재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의학과 현대 의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8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진안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 실전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9일 군산시에 위치한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에서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컨테이너를 활용해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하며 △창문 파괴를 통한 수평배연 및 분무방수 △천장 파괴를 통한 수직배연 및 분무방수 △원격 직시주수에 의한 일제방수 등 주요 기능이 단계별로 선보였다. /이만호 기자



무주소방서, 다수 사상자 골든타임 시수 훈련 구슬땀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지난주 무주국민체육센터서 버스 전복 교통사고로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불시출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불시출동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버스 교통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긴급 상황을 설정해 진행되었으며, 무주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전동119안전센터 구급대, 무주의료원 신속대응팀 등이 참여해 환자 분류, 응급처치, 환자 이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일련의 구급 활동을 숙련되게 수행하며 현장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최신 장비 갖춘 특수구급차 전격배치

남원소방서는 남원 거점 출동대인 응성 지역대의 노후화된 구급차를 최신 장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로 교체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특수구급차는 첨단 의료장비와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처치가 가능하다.

기존 구급차는 성능저하와 잦은 정비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특수구급차 도입으로 긴급출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안동훈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는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장비 도입과 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백구면 복지기동대, 어르신 30세대 에어컨 필터 청소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와 맞춤형복지팀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약어르신 30세대 에어컨 필터 청소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스스로 필터를 청소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복지기동대원들이 각 세대에 직접 방문해 에어컨 내부 먼지 제거 및 필터 세척, 실외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복지119’라는 이름을 걸고 전기, 수도, 생크대, 보일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정 넘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백구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 산책길 환경정화 실시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회장 한영하)’ 회원 20여명이 모여 금산면 청도재 산책길을 방문해 환경정화를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는 한영하 회장을 비롯해 총무 김재영, 재무 김상순을 주축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다지고, 경제체제와 한파에 힘들어하고 있는 면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산악 동호회로 알려져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